

2009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⑤	②	⑤	③	①	④	②	②	⑤	③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①	①	⑤	①	④	④	③	②	③	①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③	③	①	④	⑤	④	②	⑤	①	④

[해설]

1. [정 답] ⑤

[해 설] 제시한 그림(고구려 무용총)의 모습과 관련된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①枕(침)베게 ②臥(와)엎드리다 ③射(사)활쏘다 ④眠(면)잠자다 ⑤舞(무)춤추다

2. [정 답] ②

[해 설]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이 변하는 한자의 독음을 묻는 문제이다.

手+ 𢦏=(捨 버릴 사) 心+ 生=(性 성품 성)

3. [정 답] ⑤

[해 설] 한자의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문항이다.

慶 祝 (경사 ‘경’, 빌 ‘축’)

4. [정 답] ③

[해 설] 제시한 부수와 나머지 획수에 합당한 한자 찾기

鳥(鳥, 0), 爲(爪, 8), 無(火, 8), 滅(水, 10), 煙(火, 9)

5.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글의 내용과 관련있는 한자어를 찾는 문항이다.

- ① 反省(반성) ② 正直(정직) ③ 立志(입지) ④ 自足(자족) ⑤ 勸善(권선)

6. [정 답] ④

[해 설] 제시된 풀이에 알맞은 성어 찾기

- ①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 - 錦上添花(금상첨화)
②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 雪上加霜(설상가상)
③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 孤掌難鳴(고장난명)
④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 近墨者黑(근묵자흑)
⑤ 두 사물이 서로 비슷하여 닳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 - 難兄難弟(난형난제)

7. [정 답] ②

[해 설]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성어 찾기

- ① 他山之石(타산지석) : 남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학덕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됨
② 刻舟求劍(각주구검) :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③ 朝三暮四(조삼모사)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어 농락함
④ 結草報恩(결초보은) :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⑤ 漁父之利(어부지리) : 둘이 다투고 있는 동안 제3자가 취하는 이익

8. [정 답] ②

[해 설] 사자성어의 내용을 그림으로 유추하기

제시된 삽화는 황금알을 낳은 오리 이야기이다.

- ① 大器晚成(대기만성) :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② 小貪大失(소탐대실)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음
③ 不恥下問(불치하문) :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④ 手不釋卷(수불석권) :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
⑤ 竹馬故友(죽마고우) : 장난감을 말을 같이 타고 놀던 어릴 적 친구

9. [정 답] ⑤

[해 설]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제시한 것을 찾는 문항이다.

대덕은 반드시 그 위(자리)를 얻으며 반드시 그 녹(녹봉)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명성)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수명)을 얻느니라.

10. [정 답] ③

[해 설] 일상대화 속에 알맞은 성어 찾기

- ①武陵桃源(무릉도원) : 복숭아꽃 피는 아름다운 곳이란 말로, 속세를 떠난 이상향
- ②指鹿爲馬(지록위마)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 ③愚公移山(우공이산) :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룸
- ④緣木求魚(연목구어) :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 ⑤錦衣還鄉(금의환향) :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감

11.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내용에 알맞은 한자어 찾기

- ①光復節(광복절) ②制憲節(제헌절) ③開天節(개천절) ④端午日(단오일) ⑤顯忠日(현충일)

<12~13번 전문 해석>

스스로를 굽히는 자는 능히 중한 자리에 오를 것이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날 것이다.

12.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의 의미와 관련 있는 단어 찾기

屈己 : 스스로를 굽히다 → 겸손

13. [정 답] ⑤

[해 설] 문맥으로 빠진 글자 유추하기

敵(적) : 원수, 대적하다

<14~15번 전문 해석>

학산수(學山守)는 나라를 통틀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 산에 들어가 (노래를) 익힐 때, 매번 한 곡이 끝나면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에 (모래가) 가득 차고서야 돌아왔다.

14. [정 답] ①

[해 설] 글의 주인공의 태도와 관련된 성어 찾기

- ①自強不息(자강불식) :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

②見利思義(견리사의) :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함

③易地思之(역지사지) :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④眼下無人(안하무인) :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⑤臨機應變(임기응변) : 어떤 일을 당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변통함

15. [정 답] ④

[해 설] 한자어의 짜임

入山(입산) : 산에 들어가다 - 술보

① 日沒(일몰) : 해가 지다 - 주술

② 出入(출입) : 나오고 들어가다 - 병렬(대립)

③ 同行(동행) : 같이 가다 - 수식

④ 登頂(등정) : 정상에 오르다 - 술보

⑤ 養育(양육) : 기르다 - 병렬(유사)

16. [정 답] ④

[해 설]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한역속담 찾기

① 吾鼻三尺 : 내 코가 석자

② 隨友適江南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③ 難上之木 勿仰 :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우리러보지 말라

④ 三歲之習 至于八十 :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⑤ 三日之程 一日往 十日臥 : 삼일의 여정을 하루에 갔더니 열흘간 누웠다

<17~18번 전문 해석>秋風唯苦吟

(가) 가을 바람에 오직 괴롭게 읊조리니,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적구나

창 밖엔 삼경에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

(나) 약속하신 낭군님은 어찌하여 늦으시나, 뜰 앞에 매화꽃도 지려하는 이 때

홀연히 들리는 가지 위 까치소리에, 거울 속 눈썹 만 헛되이 그려보네

17. [정 답] ③

[해 설] 문장의 빈 칸에 시구와 의미가 통하는 한자 유추하기

해석 :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18. [정 답] ②

[해 설] 한시의 감상

② (가)의 주제는 여행길의 험난함이다 → 고향에 대한 그리움

<19~20번 전문 해석>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맑으면 고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추한 사람은 그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고운 사람은 적고, 추한 사람은 많으니 만약 (추한 사람이 거울을) 한 번 보면 반드시 깨 버린 뒤에 그만둘 것이니, 먼지가 끼어 흐려지게 되는 것만 못하다.

19. [정 답] ③

[해 설] 문맥을 보고 빠진 글자 유추하기

喜(회) 기쁘다, 좋아하다

20. [정 답] ①

[해 설] 통의자 찾기

若(약) 만약 = 如(여)

<21~23번 전문 해석>

방식의 변란 후에 태조가 왕위를 버리고 함흥으로 가 버리자, 태종이 여러 차례 中使(중사)를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였으나, 태조가 번번이 활을 당기고 그들을 기다리니, 먼저 간 사신과 뒤에 간 사신들이 서로 이어졌으나(사신이 잇따라 파견되었지만), 사신들이 감히 그 뜻을 말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 때에 문안사 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21. [정 답] ③

[해 설] 고사의 유래에 맞는 성어 찾기

咸興差使(함흥차사) : 심부름꾼이 가서 소식이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의 비유

22. [정 답] ③

[해 설] 문장의 형식 (사역형)

太宗屢遣中使 問安 - 사역형

① 國亂, 則思良相 :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난다 - 가정형

② 忠臣, 不事二君 :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 부정형

③ 天帝, 使我長百獸 : 천제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 사역형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 금지형

⑤ 王侯將相, 寧有種乎 :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 반어형

23. [정 답] ①

[해 설] 문장의 해석 순서

돌아올(還) 수 있었던(得) 사람이(者) 한 명도(一) 없었다(無)

<24~25번 전문 해석>

*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하는 것으로써 거느린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

24. [정 답] ④

[해 설] 문장에서 품사의 전성에 따른 한자의 풀이

* 君(군) 1.임금 2.임금답다 帥 1.장수(수) 2.거느리다(술)

25. [정 답] ⑤

[해 설] 글에 대한 이해

<26~27번 전문 해석>

(가) 어제 성안의 시장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눈물이 수건에 가득찼네

온 몸에 비단을 걸친 사람이, 누에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네

(나) 나라와 집을 가진 사람은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음을 근심해야 한다

26. [정 답] ④

[해 설] 한시의 감상

(가)시의 시적화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누에를 애써 길러 비단을 만들어도 한 번 입어보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서이다.

27. [정 답] ②

[해 설] 주제와 문맥을 파악하여 빠진 글자를 유추하기

均(균) 고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에서 나라를 가진 자들은 백성들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해야한다.

<28~30번 전문 해석>

장보고는 신라인이다.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는데, 말 타고 창을 쓰는데 능히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후에 장보고가 본국으로 돌아와 대왕을 뵈고 말하기를,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으로 하여금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청해는 신라 바닷길의 요충지이니, 지금은 완도라고 이른다. 대왕이 보고에게 만 명의 군사를 주니 이후에 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파는 자들이 없었다.

28. [정 답] ⑤

[해 설] 어구풀이

無(무) 없다

29.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의 독음

奴婢(노비)

30. [정 답] ④

[해 설] 글의 내용 이해

청해는 신라 바닷길의 요새이다.